



강용운 작 '포옹'



천경자 작 '드로잉'

# 근·현대 한국미술 이끈 남도 작가 12명 한자리

광주시립미술관 내년 1월 28일까지 '남도가 낳은 예술가들'전

허백련·허건서 강용운·양수아까지 손재형 '금강산' 천경자 '드로잉' 눈길

20일 광주시립미술관 전시장에서 가장 먼저 만난 건 의재 허백련의 작품들이었다. 전통 남종화의 바탕 속에서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일궈낸 그의 예술 세계가 오롯이 담겼다. 옆에는 오지호 선생의 자화상이 걸려 있다. 연필로 쓱쓱 그린 자화상은 부드러운면서도 강직한 모습이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중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남도가 낳은 예술가들'전이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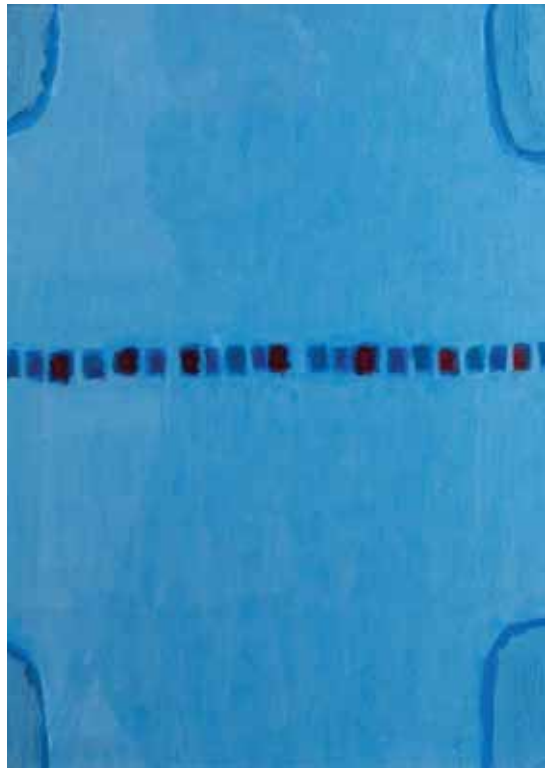
20세기 초반 광주·전남에서 출생했으며 한국근현대 미술사를 이끌었던 대표작가 12명의 작품들로 미술관 소장 작품 중에서 엄선했다.

남도 전통미술 문화를 배경으로 잉태된 작가들의 가운데는 허백련의 작품과 함께 남농 허건과 임인 허림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일본 김정희 연구자인 후지즈카 치카시 박사로부터 되찾아온 일화로도 유명한 소전 손재형의 작품이 눈길을 끈다. '서예'라는 말을 만든 그의 '금강산'은 서화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이다. 또 남종화가 강세인 화단에서 자유분방한 필치로 새로운 작품을 제작한 동강 정운면의 작품도 전시중이다.

고흥 출신 천경자의 작품은 드로잉이다. 단순한 듯하면서도 날렵한 필치로 그려나간 작품들이 인상적이다. 서양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대표작가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남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다양한 원색으로 담아낸 오지호의 작품, 아름다운 파란색과 작은 점들이 조화를 이룬 수화 김환기의 '무제'도 발길을 붙잡는다.

'수채화의 대가' 배동신의 작품들은 은은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무등산 풍경과 누드를 비롯해 안경 쓴 작가의 자화상은 자신만의 작업세계를 만들어간 장인이 갖



김환기 작 '무제'

는 강인한 이미지를 풍긴다.

지역추상 화맥을 일군 강용운과 양수아의 작품들은 강렬하다. 검은 선이 인상적인 강용운 화백의 '대화' 등이 눈길을 끌며 양수아의 작품은 초창기 구상 작품과 비구상 작품을 함께 전시해 변화된 화풍을 파악할 수 있다. 조각가로써 유일하게 우호 김영중의 작품을 만난다. 그가 즐겨 사용했던 가느다란 철제 조형물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작품이다.

전시작품을 감상하며 드로잉으로 직접 작품을 그려보는 체험행사도 마련했다. 참여자에게는 전시 종료 후 추천을 통해 미술관 홍보물을 증정한다. 문의 062-613-71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연극 '애꾸눈 광대-어머님 전상서' 공연

22일~23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5·18민주화운동 기념 공연 '애꾸눈 광대-어머님 전상서'(사진)는 5월 광주의 진실과 정신을 알리고자 기획된 연극으로 당시 현장에서 투쟁하다 한쪽 눈을 잃은 주인공 이지현 씨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

2017년도 '애꾸눈 광대-어머님 전상서' 마지막 상설공연이 오는 22일~23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올해 '애꾸눈 광대' 공연은 상설공연 10회, 순회공연 10회 총20회 공연이 계획돼 있다. 먼저 상설공연은 지난 5월부터 매월 넷째 주 화·수요일에 8회의 상설공연을 진행했으며, 이번 2회의 공연을 남겨두고 있다.

공연 내내 전석매진이라는 성과를 기록하며 관람객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확인했다.

특히, 올해 '애꾸눈 광대' 주제는 '어머님 전상서'로 격동의 세월을 겪은 어머니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액자식 구성' 등 새롭게 각색해 많은 호평을 받았다.

김원민 씨가 대본을 새롭게 각색하고 연출은 이행원 씨가 출연진에는 이지현, 정이형, 강인영, 이현기, 노희실, 정경아, 양선영, 김정규 씨 등 광주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출연한다. 무료공연 문의 062-670-794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막스 베버와 더불어 인문사회학적 인식을

광주시민자유대학...카셀대 김덕영 교수 12시간 강의

26~27일 시교육연수원

시민 주도로 학문과 예술을 공부하는 광주시민자유대학(학장 장복동)이 오는 26~27일 광주시교육연수원에서 '2017 사회학 캠프 : 베버 패러다임'을 개최한다.

'막스 베버와 더불어 인문사회과학적 인식'을 주제로 개최될 이번 사회학 캠프 초청 강연자는 사회학자 김덕영(사진) 독일 카셀대 교수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후 독일로 건너가 괴팅겐대에서 학·석사 학위, 박사 학위를 카셀대에서 대학교수 자격을 취득한 그는 현재 서울과 독일을 오가며 사회학 강의, 사회학 고전 번역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 김 교수는 베버의 방대한 지적 세계를 조망하는 가운데,



베버의 인문사회과학적 인식과 사유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사회학 캠프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행사로, 토

일 이틀간 12시간 집중강연으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일반 시민은 5만원, 시민자유대학 회원 및 대학 학부생은 2만 5000원이며 청소년은 무료다. 교원의 경우 교원직무연수로 무료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광시교육연수원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문의 062-961-111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자연 그리고 향연'...광주사생회 정기회원전 23~30일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자미갤러리

지난 1984년 첫 모임을 가진 광주사생회는 늘 현장에 있었다. 자연과 교감하며 만난 생생한 풍경과 감흥을 화폭에 옮겨왔고, 아름다운 산천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첫 단체 스케치 여행은 거문도였다. 이후 회원들은 변산 채석강, 영랑 법성포, 남해 미조리, 고흥 나로도 등 우리 산하 곳곳을 찾아 나섰고 초창기 14명으로 출발했던 회원은 지금 50여명으로 늘었다.

1986년 가톨릭미술관에서 첫 전시회를 연 이후 회원들은 꾸준히 작품들을 선보여왔다. 제32회 광주사생회(회장 문명호) 정기회원전이 23~30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과 광주시 북구정 자미갤러리 두 곳에서 동시에 열린다.

'자연 그리고 향연'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에는 조규일, 이우진, 황기록, 서봉한, 황수무, 문명호, 김종옥, 오주



문명호 작 '장미-꿈'

현·이지화·강성희·이신자·김일남·정성복씨 등 53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회원들은 한적한 마을 풍경, 시원한 남해의 바다, 꽃비 흠날리는 모습 등을 담은 풍경화와 정물화, 인물화 등을 내놓았다.

회원들은 지금도 여름과 겨울 두차례 단체 사생을 나가고 부산 해운대, 울산 통도사, 대구 팔공산 등에서 부산·대구 등 6대 광역시 사생회 교류전과 합동스케치 전 등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올해 합동 스케치는 인천 강화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프행사는 24일 오후 6시 금남로 분관에서 열린다. cafe.daum.net /gwangjuart. 문의 010-2031-21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광주맛집**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IANG HOTEL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